

수 요 인 터 뷰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 힘 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년전에 이미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원력을 세우셨고, 이제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주시죠.

▲먼저 일을 하도록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동국발전의 외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부처님께 다시 발원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철사를 위한 외형적인 설계가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일산에 제 3 캠퍼스를 건설하고 불교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총 32만평의 부지 마련 계획이 서 있고, 이미 4만5천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완성시켜 99년에 신축교사로 일부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2003년까지 필요한 대학이 이전 완료합니다.

동국대 새 총장 송석구 박사

대담 : 최정희 편집국장

—그간 부총장직을 비롯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학교살림에 남다른 역할을 해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4년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실 걸로 기대가 큼니다.

는 대학철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총무처장 시절부터 관심 갖고 경주, 포항, 서울병원의 개원에 애써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기획실장과 의료원장 등을 역임 하셨지요.

▲관심 갖고 일하다 보니까 경험도 생겨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져옵니다.

일산캠퍼스에 1천병상 규모의 불교병원을 세워 2년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중단·학교의 상호지원

특히 세기가 변하는 2천년대와 개교 1백주년(2006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총장직을 맡으



약 력

-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 국립대관대 철학 연구소 수석
-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취득
- 77년부터 동국대 교수, 부총장 역임
- 한국 중앙철학회 회장
- 박사학위논문 '율곡의 철학사상연구' 등 논저 다수

일산에 제3캠퍼스·불교병원 건립 동국발전기금·수익사업전개 재정보호

셨다고 봅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으실텐데요,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다. 포항병원도 신축하고 경주의대 옆 부지에 의료휴양시설을 건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의대교수 해외연수 및 교수연구지원, 교직원 복지사업을 펴려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학교는 종합대학입니다. '불국토건설'이라는 동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화, 개방화의 주역이 되고 첨단정보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발전하는 자세로 학교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불사에 걸맞게 내실을 다지는 교육개혁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연계성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종단에서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불교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동국대학교도 함께 가야한다는 거죠. '깨달음의 사회화'는 곧 더불어 사는 자리아타적인 신명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발맞춰 우리학교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불사들이 원만성취되려면 재정보호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스님들과 2천만 불자, 그리고 동문들이 함께하는 동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경주부속병원과 연계한 콘도형 휴양시설, 부동산 활용등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외형적인 불사에 걸맞게 내실을 다지는 교육개혁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학, 전산,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졸업패스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생 정원규모의 기속사를 건립, 전교생의 어학,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국제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교수에게 강의조교를 배치하고 연구환경

개선에도 주력하려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디다. 아직까지 밝히신 계획이 모두 학교발전안이지만 그밖에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개교 90주년 내년에 불교국제학술회를 열고, 외국인에게 불교를 알리는 홍보의 일환으로 불교 섬머스쿨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자로서 '율곡의 철학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저서(불교와 유교)등 발표된 논저가 상당하신데요. 이러한 학문적 축적이 학교경영에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와 유교가 서로 융합하는 사상체계를 불심으로 활용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는 총장님의 영향으로 학교내의 불심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의 수행일기

한 명 속 아가수



내가 불교와 처음으로 인연의 끈을 잇게 된 것은 결혼과 더불어서였다.

결혼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으로 시집을 간 내게 시어머니께서는 "애야, 우리집안은 대대로 불교집안이었다." 하시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만해도 나이도 어렸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절에 따라 다니는 그런 불자였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초하루, 보름이면 절에 가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며 그냥 그렇게 경법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중 지난 87년에 미국에 가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LA에 갔었다. 그곳에서 독실한 불자이자 가수인 송준희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먼 타국땅에 와서도 스님 법문들따라 절에 가자고 나를 하두 조르는 통에 함께 LA에있는 경화사에 가게 되었다.

지금 그 스님 법문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경화사에서 들었던 법문은 나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어 법문을 경청하던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도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얼마전 미국에 머물면서

을 꼭 뵈어 악수에 응해준대 너무나 행복해 미소짓는 그들의 얼굴속에서 나 또한 행복함을 느끼기 한두번이 아니다. 예전에는 공연을 가면 눈물만 내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공연에서 그들을 만나고 와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나의 히트곡 '노란사스의 사나이'를 장애인들과 함께 부를때면 음정 박자 가사가 모두 틀려도 그렇게 신명이 나고 기쁠수가 없다.

이런 보람과 행복감으로 남광수, 김철상, 명국환, 진승남, 장미화씨 등 불자가수회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김길종장사 사회복지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얼마전 후배가수인 김세라씨가 불

미국서 발심... 기쁨으로 음성공양

LA에 사는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법회가 열리는 관음암이면 경화사, 관음사등을 찾아 법문을 청해 들었다.



교로 개종한 것이다. 카톨릭신자였던 그녀는 평소 나와 특별한 친분으로 내가 항상 그녀를 만나던 연애인법회에만한 내외로 지 않았느냐고 오랫동안 권유하고 또 권유했다. 그런 그녀가 지난해 불자연애인 송년법회가 열리는 마포 가든호텔에 말도 없이 나타나 법회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때 어쩌나 기쁘고 고맙던지 그녀 스스로가 불자가 되었다.

이국땅 타국땅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수행자의 숭고한 길을 걷고 있는 스님네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그동안 무얼 하며 살았나 반성도 하게 되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라”는 어느 스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가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다.

▲믿음, 신행이 강제성을 띠 수야 없겠지만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따라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정기간의 사할수련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불교를 신학운동으로 연계 하겠습니까. 종립학교다운 학내분위기가 곧 동국의 특징이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가수가이 이전에 한사람의 불자이고 어머니였기에 ...

특히 세계의 대학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으로 21세기의 과제를 푸는 학문적 길을 열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의 내일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가수생활 내내 각종 공연, 방담대담을 다니며 바쁘게만 살아와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불자가수회에서 활동한 그간의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었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해방이후의 동국대 출신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불교사와 학교 1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말씀하시는 '보현행원'으로 큰 업(業)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눈이 내리는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불자가수회회원들과 어린이 불교합창단과 함께 찬불가를 부르며 음성포교를 하기도 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결심과 신심을 뒷받침해 주는 불자가수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포함한다. 그들은 모두 나의 영원한 도반들이며 불교포교의 역군들이다.이들과 함께 이 생명 다할때까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심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건강'은 이제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자 국가전략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함께 전개해나갈 뜻있는 몇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 가족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실 분-꿈과 보람이 있고 생활이 보장되는 우리들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모집인원: 남 10명, 여 5명
- 학 력: 초대졸 이상(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 연 령: 38세 이상
- 대 우: 고정급 및 수당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48-1 계림B/D 6층 11호
전화: (0343) 49-9949, 41-5071 • FAX: 42-3967

1995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불교예술대학 개강

정덕자 고전문용학원 전통승무, 살풀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2호 등록

무·료·강·습

1 정덕자 무용가시인 시집
2. 푸른 마음은 종이다
3. 마음 뿌리 잘내려야 4. 일으켰던 마음날
5. 마음은 불꽃

■모집기간: 95년 1월 4일~2월 28일
■모집인원: 1백명 선착순
■개강일시: 95년 3월 10일

매주 화요일·고전문용
매주 수요일·국악, 판소리, 시조, 민요

■강의 및 실습시간: 오전 10시~12시
초빙강사특강
1년 수료

부산불교예술대학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603-6
(051)866-0826, 861-0535
(011)576-0826